

14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태희는 낮에 강도가 침입한 이웃 경주네 집에서 경주 엄마와 함께 밤을 지낸다.

개업식은 오후 두 시였지만 그녀는 일찌감치 집을 비워두고 시내로 나갔다. 긴 겨울 방학에 이어 다시 봄 방학까지, 남편과 같이 있던 날들의 답답한 호흡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렸다는 것인가. ㉠ 남편의 출근이 시작되자마자 그녀 역시 바깥 세계로 나갈 작은 희망 사항을 하나 가슴에 품고 있던 중이었다. 그저 한가한 시내버스에 몸을 싣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보든가, 새로 개장한 백화점에 둘러본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근처 국민학교를 찾아가서 뛰어다니는 신입생들의 가슴에 매달린 흰 손수건이라도 쳐다보든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에게 하루는 터무니없이 길었다. 게다가 아이를 갖지 못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보내는 하루는 그 얼마나 멀고 먼 도래받인지.

㉡ “모두가 운이예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도 재수가 좋았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봐요, 이런 유의 가정 파괴법까지도 득시글거리는 세상인데.”

젊은 나이답지 않게 여자는 팔자소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당한 쪽의 편에서 팔자에 대해 한층 너그럽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그해 여름 느닷없이 증발되었을 때, 그리고 일주일 만에 멍든 육신으로 되돌아 왔을 때 태희는 경악과 분노로 차라리 손가락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난 비교적 운이 좋았던 거야. 하기가 원래도 별다른 행동거지를 내보인 적도 없었고, 다들 들어갔다 하면 고장 난 몸뚱이로 일 년 이상 썩는 게 예사니까. 푸른 물갈 통 속에서 갓 빠져나온 듯한 몸뚱어리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때때로 낮은 신음을 뱉어가며 그는 자신의 몸을 신통한 기계나 내려다보듯 구석구석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다. 그 스스로 확인했듯이 그는 결코 반골 기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

“강도보다도 더 미운 것은, 이 아파트에 사는 우리들의 이웃이었어요.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번개처럼 복도 끝에서 끝으로 내달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었지요……. 아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의 호흡이 다시 거세졌다. 몸을 일으켜 내려다보니 ㉢ 여자는 불끈 쥔 주먹으로 허공을 때려눕히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어둠 속 여자의 주먹은 비어 있는 허공의 어디쯤에 한 움큼의 슬픔으로 떠 있는 유영체처럼 보였다.

㉣ 복도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내달리는 사이 어린 딸이 흉악범의 비수 아래 놓여 있었다. 그의 칼끝을 피해 뒷걸음치다가 삼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안에 남겨놓은 어린 생명에 대한 끝없는 불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미친 듯이 203호를, 204호를, 205호를 두드렸다. 강도야! 내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206호를, 207호를 두들기며 또 소리쳤다. 강도야. 살인강도야. 도둑이야……. ㉤ 아파트 전체가 으레 공명판이 되어 뽐 떨어지는 소리가 지 수십 배 확대시켜 들려주었던 절박한 여자의 비명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난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막 문을 두들기려던 209호였던가요. 안에서 살그머니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지요. 내 딸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갔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수궁하는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다.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 여자가 보여준 그 불타는 적의를 태희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우르르 쏟아져 나와 혀를 차고 위로하면서 집 안을 기웃거렸을 것이다. 203호의 현관문에서 대뜸 뛰어 나왔어야 했던 그녀가 외출 중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여자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끼쳐요. 난 분명히 보았어요. 현관문 저쪽에서 렌즈 구멍에 눈을 대고 허우적거리며 뛰어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구경하던 그들을, 나 또한 틀림없이 보아버린 기분 말이에요.”

여자가 이번엔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푹푹 분질러왔다. 이어서 몇 개의 벽을 사이에 두고 긴 항해를 떠나는 배의 고동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두 번째의 커피. 남편은 여전히 책의 페이지 페이지를 넘기며, 행간마다의 의미 속으로 자진 출두해 들어가며 첫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절벽이예요, 라고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태희 역시 똑같은 말을 입속에 굴리고 있었다.

“커다란 절벽을 손으로 만지고, 활쫓고 두들겼던 거예요. 엄청난 두께와 측량 못 할 부피의 절벽…….”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그 절벽이 주는 것이었다. 태희는 여자가 깨달은 절벽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태희는 한숨조차도 쉴 수 없었다.

남편이 증발해버린 일주일 동안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 떠올렸었다. 이 세상의 어떤 악운도 그녀를 놀라게 하거나 절망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결혼 후 두 달 만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오 년이 되어가는 지금껏, 태희는 자신의 단순한 상상력을 향해 무수한 경멸을 거듭해왔다.

- 양귀자, 「밤의 일기」 -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편’을 대하는 ‘태희’의 심리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② ‘여자’와 ‘남편’의 언행이 ‘태희’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여자’와 ‘태희’가 교대로 서술자가 되고 있다.
- ④ ‘태희’가 직접 겪었던 과거 사건이 서사 전개에 축이 되고 있다.
- ⑤ ‘여자’를 대하는 ‘태희’의 이중적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태희'가 집을 비우고 시내에 나가게 된 심리적 배경에 해당한다.
- ② ㉡: 끔찍한 기억을 털어 버리려는 '여자'의 심리에서 비롯된 말로 볼 수 있다.
- ③ ㉢: '여자'의 마음속에 내재된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④ ㉣: '여자'가 처했던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여자'와 '태희'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3번과 4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폭력에 의해 나약한 개인들이 받게 되는 상처를 보여 주는 한편, 폭력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또한 부조리한 폭력이 작동하는 기제를 탐색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건들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단서를 위 글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자'가 경험한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 ② '여자'가 들려주는 폭력의 아픔을 '태희'를 매개로 '남편'에게 전달한다.
- ③ '태희'의 '아이'에 대한 소망을, '여자'의 폭력에 맞서는 모성을 통해 부각시킨다.
- ④ '여자'가 경험한 사건과 '남편'이 경험한 사건을 병치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
- ⑤ '단순한 상상력'에 대한 '태희'의 태도를, '어린 딸'에 대한 '여자'의 태도와 일치시킨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통을 겪는 '여자'와 함께 있어 주는 '태희'의 태도는 폭력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암시하는 것 같다.
- ② '반골 기질 같은 것'은 갖고 있지도 않은 '남편'이 '느닷없이 증발되었'던 것은 부조리한 폭력이 발동하는 현실의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다.
- ③ '여자'가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푹푹 분질러'대는 것은 폭력의 결과가 새로운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 ④ '그것을 수궁하는 일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다'는 '태희'의 말은 폭력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 같다.
- ⑤ '커다란 절벽'으로 비유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외면과 침묵이 폭력의 작동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상무와 비서가 일하는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에 대기업을 총수인 노파가 유실물을 찾고 싶다며 찾아온다. 노파는 유실물로 들어온 꽃다발의 향기를 우연히 맡게 된다.

노파: 이거야, 이거.

노파 또 한 번 꽃의 향기를 맡는다.

상무: ㉠ 나, 참!

비서: 할머니,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무: 난 벌써 알고 있었어. 미쳤다니까.

비서: 할머니가 찾은 것은 그 꽃이 아니라 꽃의 향기예요.

상무: 향기?

노파: 그래, 향기.

노파는 꽃다발을 책상 위에 놓고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는다. 비서가 노파 쪽으로 가 손을 잡는다.

비서: 할머니, 아가는 결례가 많았어요.

노파: 응? 괜찮다. 괜히 찾았구나. 마음이 더 허전하다. 아가 색시가 얘기했지? 잃은 물건도 찾아야 할 것이 있고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고. 나는 일생을 향기를 잃고 헤매었구나. 그러나 막상 찾아보니 이미 늦었어. 이렇게 되면 잃은 물건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사람은 반쪽만 가지고 만족해야 하나봐. 완전한 것을 바라는 것은 허무한 일인가 봐. 자, 가볼까. 내 비서 녀들은 어디를 싸다니지? (입구 쪽으로 가다가 돌아서더니 가방을 뒤척이며 수표 한 장을 꺼낸다.)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

비서: 또 한 가지요?

노파: 잃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러나 ㉡ 다시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자, 수표다.

비서: 수표요?

노파: 돈이란 말이다. 갑자기 잃고 싶구나. 받아 뒤라. 꽃의 향기를 사려면 이만 한 돈이 있어야 한다.

(중략)

상무: 꽃 냄새. 냄새가 좋은데. 이상하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라.

비서: 무슨 생각인데요?

상무: 어릴 때 동네 뒷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매미를 잡던 일..... 냇가에서 송사리를 몰던 일..... 눈 속에서 뒹굴며 놀던 일..... (갑자기 일어나며) 젠장!

비서: 왜요?

상무: 빌어먹게 마누라의 얼굴이 떠올라! 나 참! 아,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나?

비서: 아뇨 틀이 없었어요. 지금 걸지요.

상무: ㉢ 그만 뒤! 내가 걸게. (상무가 책상 쪽에 와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아, 나야, 나, 뭐야? 나란 말이야! 아니, 무슨 여편네가 남편의 목소리도 몰라봐? 뭐라구? 전화를 통해 내 말을 듣는 건 생전 처음이라구? 그런가? 참말이야, 나란 말이야! 뭐야? 나 참! (수화기를 세차게 놓는다) 날더러 미쳤대. 아, 그럴수도 있잖아? 회사 일이 바쁘게 전화를 걸 틀이 어디 있어? 10년이 됐군. 집에 전화를 걸어본 지도 흠!

상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비서는 장부를 펼친다. 문이 열리며 점원이 들어온다.

점원: ㉠아까 그 할머니는 어디 갔죠?
 비서: 나갔어.
 점원: 어디로요?
 비서: 몰라.
 점원: 찾아야 해요. 비서들이 야단이에요. 비서님은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요?
 비서: 몰라.
 점원: 굉장한 분이예요. 빨리 찾으십시오.
 비서: 나 일이 바빠.
 점원: 아니, 비서님은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니예요? 나 참!

점원이 혀를 차며 나간다. 이어 상무가 가방을 들고 황급히 나와 전화를 건다.

상무: 나야 이젠 알겠어? 고맙군. 나 이제 집으로 갈 참이야. 응, 회장님을 만나고 사표를 내기로 했어. 너무 바쁘니까. 그래, 곧. 왜 이래? 왜 우는 거야? 뭣이 사표를 낸다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기뻐서 울어? 나 참! 울지 마! 울지 말라니까! (수화기를 놓고) 재수 없게 울고 있어! 여자란 참!

비서: ㉡ 사표를 내요?

상무: 응, 하마터면 잇을 뻔했군. 수고가 많았어. 참, 꽃방이 어디 있어?

비서: 이 백화점 지하실에도 있어요.

상무: (책상에 있는 꽃을 보고) 이만한 꽃다발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비서: 한..... 500원쯤.

상무: 그렇게 싸가? 그럼.....

상무가 뛰어나간다. 그의 뒷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비서는 책상 한 모퉁이에 있는 수표를 든다. 잠시 망설이다가 잘게 찢는다. 손바닥에 찢은 조각을 놓고 후 불어 버린다. 수표 조각이 마루에 흩어진다. 이어 장부를 보며 전화를 건다.

비서: 안녕하세요? 신용과 상품의 질을 생명으로 하는 신대륙 백화점 유실물 관리실입니다. 댁에서 신고한 유실물을 찾았습니다. 언제든지 오 [A]시면 됩니다. 도장하고 시민증을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서서히 막이 내린다.

- 이근삼, 「유실물」 -

※ <보기>는 위 작품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5번과 4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작가는 이 작품에서 욕망에 얽매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의 정신적 불구 현상에 주목한다. 현대인은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의 전도 현상으로 자기 상실과 관계의 단절을 겪고 있다. 작가는 관객들이 이러한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뿐 아니라 자기 상실과 관계의 단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상무'의 지난 삶은, '정신적 불구'자로서의 현대인의 삶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노파'와 '상무'에게 깨달음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꽃의 향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상무'의 아내가 흘리는 기쁨의 눈물은, 단절되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수표'를 찢어 버리는 '비서'의 행위는, 물질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한 방법임을 알려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노파'가 '꽃의 향기'를 접하고 느끼는 허전한함은, 물질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느라 허비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라 할 수 있어.

5. 연출자가 ㉠~㉡에 대해 연기를 지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무'는 ㉠을 말할 때 표정과 말투를 통해 어이없어하는 반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② '노파'는 ㉡을 말하면서 '비서'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표를 내 주어야 합니다.
- ③ '상무'는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를 내보이며 '비서'를 향해 ㉡을 말해야 합니다.
- ④ '점원'은 '비서'에게 다급한 어투로 ㉡을 말해야 합니다.
- ⑤ '비서'는 ㉡을 말할 때 '상무'를 바라보며 의아해하는 심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7. [A]가 관객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할 때, 그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 ②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③ 인물들의 어리석은 면을 환기시켜 희극적 재미를 준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이 완전하게 해소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⑤ 진정한 가치의 회복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여 준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꺾테기는 ㉠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꺾테기는 가라.

꺾테기는 가라.
동학년* 꿈나무의, 그 ㉡ 아우성만 살고
꺾테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꺾테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꺾테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꺾테기는 가라」 -

* 4월 :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
* 동학년 :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1894년.
* 초례청 : 혼인 예식을 치르는 곳.

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색채어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화자의 단호한 어조가 나타나 있다.
- ② ㉡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의지를 제차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에서 공간적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 ⑤ ㉤은 시적 허용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동엽 시인은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인 대지에서 우리 민족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당시는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했고 남과 북은 이념 대립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였다. 시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와 봉건에 저항했던 동학 혁명이나 불의에 저항했던 4월 혁명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① '꺾테기'는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중립의 초례청'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모순과 부조리가 담겨 있는 현실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 ③ '맞절할지니'는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화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
- ④ '흙 가슴'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⑤ '쇠붙이'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부정적인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

[11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 줄거리] 이생은 최 여인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시골로 쫓아 버리자, 최 여인은 상사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된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가 두 사람의 혼례를 성사시킨다. 이후 이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만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 최 여인은 흥건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난이 평정된 후 최 여인은 이생 앞에 나타난다.

그 뒤 이생도 역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여인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그러자 피난을 나가 살던 노복들도 역시 제 발로 찾아왔다. 이생은 그 이후로는 인간사에 게을러졌다. 그래서 비록 ㉠ 친척과 빈객의 길흉사에 하례하고 조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최 여인의 화답을 구하거나 최 여인이 지은 시에 화답하면서, 글씨가 좋아 화락하게 지냈다. 그렇게 서너 해가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하였다.

㉡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습니다만, 세상일은 어긋나기만 하네요.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오다니.”

그렇게 말하고는 마침내 흑흑 울음을 터뜨렸다. 이생이 놀라 물었다.

“어찌 이리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제께서 저와 그대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아무 죄장(罪障)*이 없음을 살피시어, 환체(幻體)*를 빌려 주어, 그대와 함께 잠시 시름으로 애간장을 끓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승 사람을 현혹할 수는 없지요.”

최 여인은 몸종을 시켜 술을 올리게 하였다. 그리고는 옥루춘 한 곡을 노래하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전장의 창과 방패가 시야에 가득 어지러운 곳
옥구슬 부서지고 꽃잎은 날며 원앙도 짝 잃었네.
남자하게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은 하소연할 사람 없어라.

[A]

고당에 무산 선녀 한 번 내려온 뒤로
깨졌던 구리 거울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작별하면 둘 다 아득하여
천상과 인간 사이에 소식이 막히리라.

“내 차라리 그대와 함께 황천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홀로 여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 난리가 있을 뒤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남자하게 흩어져 있었을 때, 만일 남자가 아니었다라면 누가 매장할 수 있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남자의 천성이 효순하고 착하며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이었소. 그러기에 너무도 감격하였소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어찌 이길 수 있었겠소? 부디 남자는 인간 세상에 남아서 백 년 뒤에 나와 함께 흠이 뭍어 어떻겠소?”

여인은 대답하였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여러 기(紀)*가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져 저승 세계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비단 저에게만 죄과가 미칠 뿐 아니라 아울러 그대에게도 누(累)가 미칠 것이예요. 다만 저의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 유해를 바람과 햇볕에 그냥 드러나 있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여인은 말하였다.

“낭군님, 부디 몸조심 하세요.”

말이 끝나자 여인은 점점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종적도 없게 되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묘소 곁에 묻었다. 장례를 지낸 뒤에도 ㉥ 이생은 여인을 추모하고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애처로워하고 슬퍼하여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 죄장: 불교에서 수행이나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죄악을 이르는 말.

* 환체: 불교에서 덧없는 인간의 몸뚱이를 이르는 말.

* 기: 해, 세월.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③ 긴박한 분위기를 갖은 장면의 전환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여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입체적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12. [A]의 기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인물의 심리 상태를 보여 줌.
 ㄴ. 사건이 전개될 방향을 암시함.
 ㄷ.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함.
 ㄹ. 경험한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제시함.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3. ㉠를 들은 이생의 심정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게 웬 청천벽력(靑天霹靂)인가?
- ② 아내에게 결초보은(結草報恩)해야겠다.
- ③ 모든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니겠어?
- ④ 아내 입장에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겠군.
- ⑤ 이 상황에서는 비분강개(悲憤慷慨)할 수밖에 없겠네.

1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최 여인을 다시 만난 후 이생이 세상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 이생과 최 여인 사이에 이미 두 번의 이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최 여인이 이생과 계속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④ ㉤: 부모의 장례를 제차 부탁하는 것을 통해 최 여인의 효심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최 여인에 대한 이생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빠른정답.

2	5	4	3	3
5	1	2	4	2
2	1	1	4	

[1~3] (현대소설) 양귀자, '밤의 일기'

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지만, '태희'의 시각을 중심으로 '여자'와 '남편'의 언행이 해석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불행을 외면한 이웃 주민들에 대한 '여자'의 분노가 증폭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으며, '남편'에 대하는 '태희'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③ 서술은 작중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④ '태희'가 아니라 '여자'가 직접 겪은 사건이 서사 전개의 축이 되고 있다. ⑤ '여자'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태희'가 '여자'에 대해 이중적인 심리를 보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

㉠은 '여자'가 자신을 도와달라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가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은 그의 불행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여자'와 '태희'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태희'가 '바깥 세계'로 나갈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여자'가 일을 겪었을 때 집을 비우게 된 배경을 말해 준다. ② '여자'는 자신이 당한 일을 '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여 '끔찍한 기억'을 덮고자 한다. ③ '여자'의 주먹질은 '여자'의 분노 행동이다. 아울러 태희는 그 행동에서 '슬픔의 유영체'를 느낀다.

3. [출제의도] 작품의 서사 구조를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여자'의 사건을 서술하면서 '남편'의 사건을 병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연결을 통해서 일상의 '우리'가 '부조리한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사건들'의 구조적인 연결과 관련성이 없는 답지이다. ② '남편'에게 '여자'의 불행에 관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남편'의 실종에 관한 태도와 '어린 딸'에 대한 모성은 성격이 다르며 일치되어 서술되지도 않았다.

4.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여부를 비판한다.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부조리한 폭력이 작동하는 기제를 탐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자'가 '손가락 관절'을 부러뜨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불행을 외면한 이웃에 대한 분노이며, 이 분노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절벽'에 부딪친 것 같은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새로운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고통에 대한 모두의 외면과 침묵은 폭력이 작동하고 전개되는 기제의 일부를 이룬다. 고통을 겪는 사람과 함께 하는 태도는 그러한 기제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단서로 해석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사라진 '남편'의 사건은 폭력의 부조리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태희'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수궁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며, 이는 폭력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여자'는 강도의 침입 그 자체보다 강도를 막고 자신을 돕기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은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경악하며, '커다란 절벽'을 느끼고 있다.

[5~7] (희곡) 이근삼, '유실물'

5. [출제의도] 글의 갈래상 특징을 이해하여 인물의 심리 및 태도를 파악한다.

'상무'는 '꽃향기'를 맡고 자신이 잃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그리고 단절되었던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상무'가 불안해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상무'는 '노파'가 '꽃향기'를 맡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꽃향기'라는 반응을 보이자 ㉠의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노파'에 대해 '미쳤다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을 말할 때 '상무'가 '노파'의 행동에 대해 어이없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노파'는 '잃고 싶은 물건이 있다'라고 말하며 '비서'에게 '수표'를 주고 있다. 물질적 가치를 표상하는 '수표'를 잃어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표'를 '비서'에게 줄 때는 망설임 없이 주어야 한다. ④ '점원'은 '노파'에 대해 '굉장한 분'이라며 '빨리 찾았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점원'은 다급하게 ㉠을 말해야 한다. ⑤ '상무'는 10년 동안 일에 몰두해 가족을 등한시해 왔다. 그랬던 '상무'가 사표를 냈다는 말을 '비서'는 갑작스럽게 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서'가 사표를 냈다는 '상무'의 말을 듣고 그의 태도에 대해 의아해했을 것이라 사실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노파'는 잃고 있던 '꽃향기'를 찾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노파'는 '괜히 찾았구나'라고 말하며 '마음이 더 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꽃향기'를 찾았으나 너무 늦게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인간적 가치를 찾지 못한 채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너무 늦게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상무'는 10년 동안 집에 전화도 한 번 걸지 않고 일에만 몰두해 살아왔다. 욕망에 얽매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② '꽃향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

은 인물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상무’는 일에만 몰두해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상무’의 아내는 일에만 몰두했던 남편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비서’는 ‘수표’를 찢고 있다. 이는 물질적 가치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대사의 기능을 파악한다.

이 작품에서 ‘백화점 유실물 관리 센터’는 잃어버렸던 자아를 되찾는 공간이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공간이다. ‘비서’는 관객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 이러한 ‘유실물 관리 센터’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방문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8 ~ 10] (현대시)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이 시는 4·19 혁명, 동학 농민 운동의 정신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작가는 이런 상황에서 초래된 남북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4월과 동학의 정신을 훼손하는 부정적 세력을 몰아내고 때 묻지 않은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8.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 시는 ‘껍데기는 가라, 쇠붙이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아우성만 남고, 흙 가슴만 남고’ 등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얻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시는 명령형 어조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대상과의 친밀감을 찾을 수 없다. 껍데기를 비롯한 부정적 대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 알맹이를 비롯한 긍정적 대상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9. [출제의도] 시어나 시구의 의미, 기능 등을 파악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각각 남북한을 대표하는 두 산인 한라산과 백두산을 통해 ‘한반도’라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라’라는 명령형 어조에서 화자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다. ② ‘아우성’은 동학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청각적 이미지가 결부된 ‘아우성’이라는 시어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⑤ ‘모모든’은 언어 규범을 파괴한 시적 허용의 표현이다. 이를 통해 이어지는 내용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10. [출제의도] 자료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를 감상한다.

‘중립의 초레칭’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아사달 아사녀’가 맞절하는 공간으로 남과 북이 화해를 모색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껍데기’는 작가가 물리치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우리 내부에도 존재하는 그들의 추종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레칭’에서 맞절하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흙 가슴’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으로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인 대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 14] (고전소설) 김시습, 「이생규장전」

소설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두 번째로 실려 있는 작품으로, 이생과 최 여인의 사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자유연애나 귀신과의 사랑 등 당시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설정과 내용을 담고 있다.

11.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지문은 흥진적에 의해 죽임을 당한 최 여인이 이생에게 다시 나타나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나누다가 저승으로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귀신이 나타나서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의 성격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③ 지문에는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 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12. [출제의도] 삽입시의 기능을 파악한다.

이 작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삽입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삽입시는 주로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A]는 정서를 드러내는 것 외에도 최 여인이 과거에 겪었던 사건에 대해 환기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ㄷ. [A] 앞 부분에서 뚜렷한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ㄹ. [A]에서 최 여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 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건의 교훈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13.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하게 한자성어를 활용한다.

이생은 귀신으로 자신을 찾아온 최 여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최 여인이 저승으로 떠나 버린다. ㉞는 최 여인이 이생에게 이별을 알리는 것으로 이를 들은 이생의 심정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뜻의 ‘칭천벽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② 결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③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④ 전화위복: 재앙과 환란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⑤ 비분강개: 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

1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 부분에 나오는 ‘유해’는 최 여인 자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은 부모의 장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신을 잘 수습해 달라는 부탁이다.

[오답풀이] ㉢에는 최 여인이 나타나자 두문불출하며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생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생은 최 여인과의 사랑 때문에 세상 일에 관

심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세 번의 만남이 있었고 이제 또 이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최 여인과 이생 사이에는 이미 두 번의 이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